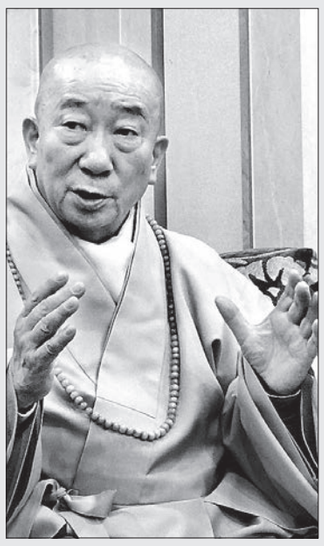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 발전위한 역할 쉼없다"

30년 종단협 사무총장 '내려놓은' 홍파스님

16명 회장 모셔…

"자기 종단 일보다 회원종단 의견 듣는 중재자 역할에 중점 두는 소임"



"종단협(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30년 가까이 활동해 온 종단협 사무총장 소임을 회향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해 부족한 제게 부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점에 대해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소임을 내려놓고 부회장으로 선출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사진〉은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홍파스님은 종단협 초창기인 1984년 종단협 사무총장 소임을 맡은 이후 30여 년간 사무총장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와 한중일불교문화우호교류대회 등의 실무를 맡아 왔으며, 종단협 회원 종단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외 교류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종단협 회원 종단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1980년대 사무총장으로서 종단협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홍파스님은 "사무총장 소임을 놓게 돼 시원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을 한결같이 불교변화와 종단협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역할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며 "그동안 16명의 회장 스님을 모시고 조계종을 중심으로 모든 종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협 사무총장은 자기 종단의 일보다 회원 종단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리이자 불교 전체를 보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30년 간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홍파스님은 종단협 후배 스님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한 걸음 뒤에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스님은 "종단협 사업에 후배 스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한일 및 한중일 불교 교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며 "이제는 누가 사무총장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중추적 역할을 내려놓고 그동안 노하우를 살려 지원하는 역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무총장 소임을 내려놓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앞으로 부회장으로서 한국불교와 종단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파스님은 "(장시간)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보니 소통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부회장으로서 한국불교와 종단협 발전, 국내외 불교 교류 사업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사학법인·언론기관 소임 맡은 스님들 '김영란법' 적용된다

후원금 잘못 받으면 처벌될 수도…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A스님이 있다. 신도가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비에 보태라며 110만원을 보시했다. 이 스님은 현재 사립학교법인에서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B스님에게 후원자가 200만원의 후원금을 재단이 아닌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다. 스님은 현재 한 언론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두 스님은 모두 '김영란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년 9월 시행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에서 소임을 맡고 있거나 언론사에 직위를 가진 스님들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에는 '초·중·고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언론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라 스님이 정식 인가를 받은 유치원, 불교종립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직위를 맡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스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무원, 임직원들을 포함해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이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인 이정미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특별히 스님이라는 신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졌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언론사는 물론 교계 언론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스님과 기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교사 등을 포함해 그 배우자까지 해당 대상"이라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또 다른 이유는 '명목'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조항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등의 수수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으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두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례로 든 두 스님의 경우 A스님은 예외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지만 B스님은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정미 변호사는 "'특별히 장기적이고 지속적 친분관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던 법안이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불교문학 지원이 교과서포교 지름길

안직수 기자의 **현장에서**
jsahn@ibulgyo.com

최근 한 모임에서 대학 불교학생회 선배를 만났다. 책을 좋아했던 선배는 졸업 후 2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선배에 따르면 '동네 서점' 매출의 60%가 3월 초 신학기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중고생들의 문제집과 보충교재 구입이 몰리는 까닭이다. 그리고 8월 말 20% 정도 문제집 구입이 있고, 나머지 11개월 매출은 10%도 채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책의 90% 이상이 수업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학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절에 가면 재미가 없어서' 불교를 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전해줄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교과서에 실리는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1980년대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이상보 수필가의 〈갑사로 가는 길〉은 남매탑의 애뜻한 설화를 더해 많은 청소년들의 발길을 계룡산으로 옮겼다. 이 수필은 1972년 〈현대수필〉에 발표된 수작이다. 또 서정주 시인과 김용택 시인이 선운사의 동백꽃을 소재로 쓴 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5월이면 고창 선운사를 찾는다. 1960년대 히트곡인 '수덕사의 여승' 가사도 '시(詩)'다. 이 노래로 인해 수덕사를 처음 찾는 사람들도 수덕사에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수많은 언론에 갑사나 선운사, 수덕사를 홍보한다 해도, 이처럼 높은 대중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 교과서의 추억으로 거리감 없이 사찰을 찾은 사람들이 추후 인연이 되면 불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불교문학에 대해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다. 문학을 통해 포교를 하고, 불교의 사상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문학에 대한 교계의 관심은 매우 낮다. "몇몇 스님, 불자들의 고상한 취미"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문인들에 대한 지원 방법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글을 발표할 권위 있는 문예지가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독자가 되어 주는 것, '문학상' 제정을 통해 좋은 문학작품을 시상하는 것 정도다. 그럴 때 좋은 불교문학 작품이 다수 나오고, 청소년들은 교과서를 통해 불교를 접하고 추후 사찰을 찾게 된다. 그것이 문서포교가 아닐까.

수국사와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9일 올림픽 꿈나무 지원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수국사, 스노보드 올림픽 꿈나무 지원

아름다운동행과 1000만원

수국사가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꿈나무 지원에 나섰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스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과 함께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선수들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내훈련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반원통 모양의 슬로프 양 벽을 이용해 점프와 공중회전 등 고난도의 공중연기를 펼치는 경기) 종목 청소년 국가대표 및 유망주 권이준, 권선우, 이민식, 정유림, 정해림 등 5명의 선수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행사인만큼 선수들이 힘써 국위선양에 나서달라"면서 "스노보드는 메달을 따기 힘든 종목이지만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기대했다. 이어 "호산스님이 이끄는 달마 대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포교원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산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격려해주시니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종단에서도 스포츠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기탁한 호산스님은 '스노보드 타는 스님'으로 유명하다. 호산스님은 2003년부터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달마 오픈 스노보드 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6회 대회부터는 2018년 동계올림픽에 나갈 주니어 선수들을 뽑아 올림픽 유망주들을 발굴해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성 명 서

Ⅰ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분열 시도를 규탄한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본회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종회의원으로 결정된 종회의원들의 자격까지 부정하며, 현 임원과 집행부가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들이라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임원들은 7년 전인 2008. 4. 18. 전임 회장스님이 개정한 회칙에 의거하여 선임되었고, 오로지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게 본회를 이끌어 왔는바,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하라.

Ⅱ 전국비구니회를 분열시키려는 결의대회 개최 시도를 중단하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현 임원과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고 2014. 9. 22. 선출한 종회의원의 자격 등을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불과 6개월 남은 이 시점에 현 임원들을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려는 결의대회는 오로지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이 회장선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전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기는 커녕 오로지 본회 전체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킬 뿐이다.

Ⅲ 우리는 비구니의 단합을 통해 종단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회칙의 문제나 이미 임기를 마쳐가는 운영위원의 구성에 관한 문제들은 긴급한 현안이 아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차기 회장선거를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으므로, 선동적인 결의대회를 열거나 현 임원진을 비방할 이유가 없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이 종단 화합을 위한 전국비구니회 임원과 집행부의 진심을 이해하여 대승적으로 회장선거 때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평정심을 되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불기2559(2015)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일동